



발명 365

종이 꼬리표

은 송용 화물마다 이김없이 붙어 있는 종이 꼬리표도 이렇듯 발명품으로 전세계 화물에 사용되고 있다. 발명가는 일본의 우에조 히로지.

우에조는 나가노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도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도쿄에 도착한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띤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화물이었다. 지방에서 수도로 부쳐오는 짐은 종류도 다양했고, 양도 많았다. 그런데 화물에는 모두 나무판자를 잘라 만든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순간 우에조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저 많은 화물에 나무판자 꼬리표라니, 종이를 만들어 붙이면 훨씬 편할 텐데……' 라고 생각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곧 종이 꼬리표를 만들어 실용선안으로 등록한 후 화물회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비웃음을 면치 못했으나 2년 후, 성공했다.